믿음이 독감 걸릴 때 대처법

(시편 25:1~22)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6.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독감 걸릴 때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믿음이 독감 걸릴 때 대처법'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심각할 경우에 독감에 걸린 것처럼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초토화'라고 하는 단어가 일상적인 영역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몰려간 느낌이 들어서 흔히 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독감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초토화되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믿음의 어떠한 모양새도 남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초토화되는 경우를 대부분의 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독감이 걸렸을 때의 대처법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2008년 1월에 만 2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해서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기침감기해열제의 투여를 삼가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무분별한 해열제 남용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기를 치료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데 바이러스의 종류가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직

접적인 원인은 바이러스이지만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투약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1차 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에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걸리는 아이가 있고 걸리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의 문제가 1차 원인입니다. 이러한 감기에 얽힌 바이러스와 면역력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기에 내용을 구분 짓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반부를 보면 다윗이 원수로 인해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자신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소싯적 죄까지 드러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신상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환란에 처한 다윗은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원수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탁월한 영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수로 인해서 물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손해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미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손해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곤경에 처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해보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환경에서 마음의 평강이 깨진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을 찾고 있습니다.
평강이 깨어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억울함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평강이 깨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얼핏 보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의 자아의식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양이 눈과 귀를 목자에게 집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마음의 평강은 원수의 등장 여부에 관계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양처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다면, 원수가 등장했더라도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서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 '도, 길'이라는 어휘가 계속해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23편의 3~4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와 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깨달음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은 목자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으로서의 마음가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살펴봅니다. 원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내게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마음의 평강을 지켜낼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독감에 걸리게 된 이유는, 원수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망각하셨거나 게을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가 양 됨의 의식을 저버렸거나 양의 신분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중단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죄입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단되면 마음으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들으며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된 이유가 행여나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죄에서 기원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신상을 뿌리째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윗은 원수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지 않고 자신의 면역력을 돌아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역할은 평강과 안정감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안정감은 죄이지만 평강은 은혜입니다. 안정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정(安定)으로서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安靜)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정’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 정은 정할 정(定)이고, 두 번째 정은 고요할 정(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쳐보면 환경이 바뀌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정감의 의미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건강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안정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여 감사헌금도 드리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강(平康)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무사하여 걱정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샬롬의 평강을 포착하기에는 이러한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머무름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머무를 때에 이 세상을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마음이 이 세상의 환경적 상황에 붙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고, 평강은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붙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탈할 때에는 평강과 안정감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원수가 등장하면 내가 가졌던 것이 안정감인지 평강인지 당장에 구분이 됩니다. 안정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그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음으로서 안정감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이 취직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몸 건강하고 부모님도 멀리 계셔서 간섭도 하지 않고 때마다 김치 담아 주시고 돈만 보내주시는 안정감은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은 곧 돼지우리에 들어앉아서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환경적 고요함과 안정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환경적 안정감을 느끼려 할 때에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이때에 사용하시는 바이러스가 바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을 등장시킴으로서 우리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것임을 일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원수가 등장하자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면 결코 평안이 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협을 받아 일시적으로 평강에 흠집이 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깊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 동안 누렸던 편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 얻었던 환경적 안정감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곧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

은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환경적 안정감을 평강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보내심으로서 마음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독감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FDA의 권고처럼 우리는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면역을 회복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수의 영역을 넓혀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원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했던 마음에 자녀의 성적표가 들어오자 분노가 일어나면서 안정감을 누리던 마음이 깨어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된 안정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는 자녀들조차 바이러스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감의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최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균실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수백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는 다윗처럼 원수에게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라 육체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죄 없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정도로 면역력이 증강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풍랑 이는 배위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한 대로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풍랑 바로 전에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자신들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장관자리 하나씩 차지하고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으리라는 죄악 된 안정감은 풍랑으로 인해 죽겠다는 아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 위에서 주님께서는 주무셨는데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의 면역력에서 나오는데 마음의 면역력을 떨뜨리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눈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적 체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붙잡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붙잡음으로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빠진 마음이 환경적으로 고요할 때에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하늘로 보낼 때에 면역력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면역력이 충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충분할 때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무력화되어 느끼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조차도 웃으며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유랑자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요셉을 형제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하심으로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름길로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배반감과 분노를 느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 면역력이 충만했기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왔던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 경험도 없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노예생활을 거뜬히 해낼 면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면역력을 통해서 요셉을 지름길로 통과시키셨던 것입니다. 왕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것은 왕을 접할 기회로 바뀌었던 것인데 이런 직통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죽을만한 일이라도 면역력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이 없다면 그렇게 인도하시고 싶으셔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어떻게 하든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늘로 향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원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조차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함이 계속될 때에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감기나 독감의 1차적 원인은 바이러스 같은 외부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면역력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양들이 목자를 향해 쏟는 열정대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백배의 면역력이 나의 것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